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이젠 내 일처럼 유가족들과 ‘동고동락’



사진 304장에 담긴 ‘세월호 1년’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스러움과 미안함으로 보낸 세월이다. 광주일보가 지난 1년간 촬영한 사진 304장을 한데 모았다. 1년 전 참사와 희생자 304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의미다.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생활 속 세월호’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각오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④ 진도군민·자원봉사자들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꼬박 1년이 흘렀다. 하지만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여기는 국민이 대다수다.

진도에서 전북 양식업을 하는 잠수사 정권일(47) 씨도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믿는다. 잠수사 정씨는 지난 1년 내내 세월호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처럼 정부의 선체 인양 결정 발표만을 기다려왔다. 선체 용접 등 잠수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을 보태고 싶어서다.

그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사고 해역을 가장 먼저 찾은 30여 년 경력의 민간 잠수사였지만, 세월호 희생자 구조작업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군당국과 해경의 지시만 기다리며 고통받았다는 점에서 희생자 가족들에게 마음의 빛이 있다고 했다.

사고 초기 그는 맹골수로 아래로 가리אות은 세월호와 물 위를 연결하는 줄(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가이드라인 설치 후에는 다른 잠수사들이 줄을 잡고 비교적 손쉽게 선체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잠수 업계에서는 이 작업을 고난도 작업으로 분류한다.

그는 지난 1993년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서해훼리호가 침몰했을 당시 10구 이상의 시신을 인양했으며, 뉴질랜드와 필리핀에서는 다이빙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잠수 전문 교관 출신이다.

정씨는 특히 참사 1주기를 맞는 이날까지 선체 인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양식업 하는 잠수사 정권일씨 초기 구조과정 소의 ‘마음의 빛’ “9명의 실종자가 있는데...” 선체인양 놓고 갑론을박 이해안가 전남도 이성태 사무국장 ‘진도수칙’ 만들어 희생자 가족 위로

“서해훼리호 당시에는 일주일 만에 90% 이상의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 18일 만에 선체가 인양됐습니다. 침몰한 배가 큰 작든, 부력백과 크레인만 있다면 인양이 불가능한 배는 없습니다. 희생자와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는 진도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때론 세월호 참사가 잊히길 바랐다고 했다. 수산물의 경우 진도산(産)이라면 시장에서 외면당했고, 수산·관광업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별이 없었다는 점에서 진도의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일을 하러 진도 앞바다에 나갈 때면 저 바다 아래 세월호가, 9명의 실종자가 잠들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심자가를 짊어진 유족이 팽목항에서도 보순례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는 죄스러운 마음에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세월호 인양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맹골수로 달려가 마음의 빛을 털어낼 계획이다.

전남도 자원봉사센터 이성태(52) 사무국장에게도 세월호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는 참사 당일부터 지난해 11월 세월호 사고 범정부대책본부 해체될 때까지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며 전국에서 모인 봉사자들과 함께 희생자 가족들 곁을 지킨 사람이다.

자원봉사자들이 지켜야 할 J(진도)수칙을 만들어 거대한 참사 앞에 낮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한 장본인이다. 그는 이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다시 팽목항을 찾



잠수사 정권일씨.

았다. 희생자 가족들을 다시 만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들 곁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끝>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증거가 아닌 추리로 벌 줄 수 없어...”

한전 공사비리 업체 대표에 무죄선고 판사의 고뇌

“탄원에 어긋난 판결...마음 무겁다” 검찰 우회 비판

판사가 선고에 앞서 ‘무죄’ 판결 배경을 설명하는 극히 ‘이례적’ 상황이 연출됐다. 법관 생활 동안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탄원서를 받았지만 엄밀한 ‘증거’가 없어(탄원에) 어긋나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성 소회를 밝힌 것이다.

재판부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과 관련, 예들러 검찰의 빈약한 수사와 미흡한 공소 유지 기능을 꼬집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 입장에서 ‘굴욕’으로 받아들여진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5일 총무를 두고 전체 공사액의 2.5~4% 씩 돈을 모아 한전 직원들에게 상납한 혐의(제3차 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기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한 선고에 앞서 방청석을 둘러보며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냈다.

김 판사는 “선고 외 적절하지 고민됐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며 운을 뗐다. 그는 “피고인들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검찰 구형에 의구심을 내 보이고 특정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면서 “판사 생활 15

년간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탄원서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만큼 관련 사건으로 인한(동종업자들에게)고통이 크다는 것임을 이해한다”면서 “탄원에 어긋난 판결을 하게 돼 한없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법원은 추리가 아닌 증거에 의지해 재판하는 곳으로 증거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을 엄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증거 부재가 무죄 판결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했다.

한편, 김 판사는 이날 제3차 뇌물교부 또는 제3차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주모(60)씨 등 전기공사 업체 3명에 대해 무죄를, 함께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제3차 뇌물취득 혐의는 무죄, 뇌물공여죄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창사 63주년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제주,광주,전라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4월 입회고객 (100분한정) 특별 사은권 제공

광주지역 OPEN기념 100구좌 한정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 (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경남 (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 (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대구 (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산 (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콘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텔리스팅)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

*SG에스골프는 부킹몰(주)에서 지원하는 혜택이며, 골프장가는 무료입니다.